

## 46. 진행되는 북방왕국의 최종실상

2012. 11. 11.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명호 목사입니다. 김영진 목사입니다. 오늘도 다니엘서 11장을 살피겠습니다. 영적 투쟁이라는 기본적 생각을 중심으로 계속 살펴나가려고 합니다. 지난 시간에 로마가 어떻게 강대국으로 역사의 전면에 등장하였는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오늘부터는 이 로마가 어떻게 하나님과 그 복음을 교묘하게 대적하는지 예언을 통하여 살펴보고자 합니다. 애청자들에게서 기도하시면서 깨닫는 은혜를 함께 누리시기 바랍니다. 말씀 CD를 원하시면 나성중앙교회 박진용 목사님께 연락하시면 보내 드립니다. 626-374-9480번으로 전화하시거나 김영진 목사님께 연락하시면 됩니다. 김목사님 전화는 626-497-8199입니다.

[단11:20] 그 위를 이을 자가 토색하는 자로 그 나라의 아름다운 곳으로 두루 다니게 할 것이나 그는 분노함이나 싸움이 없이 몇 날이 못 되어 망할 것이요.

[눅2:1,2] 이 때에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2 이 호적은 구레뇨가 수리아 총독 되었을 때에 첫 번 한 것이라.

1. 지난 시간에 남북왕국의 각축 중에 슬그머니 등장한 로마에 대한 예언을 들었습니다. 로마가 시리아를 제압하고 이제는 북방왕의 자리를 차지한 사실을 들었지요. 그 내용을 생각하니 역사의 세부를 상당히 자세히 예언한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예언하신 의도가 무엇일까요?

답: 예, 지난 시간에 말씀을 나눈 대로 성경예언은 구원의 복음이 이 세상에서 실현하는데, 악의 권세가 어떻게 방해하는지, 또 하나님께서 그런 방해를 헤치고 어떻게 복음을 성취시키시기를 가르쳐주는 것이 예언의 핵심입니다. 다니엘서에 예언된 세상나라들의 등장과 각축이 어떻게 구원의 복음을 증거하는데 방해하는지를 보여주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 것을 가르쳐주지요. 그러므로 예언을 연구하면서 복음을 반대하는 세력들이 어떤 일을 벌이는지를 확인해야 하고 그럴 때에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 것을 배워야 하며, 동시에 연구하는 사람들이 어디에 서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유사성을 띤 많은 기독교가 득세할 것입니다. 우리는 오직 성경에 의하여 분별하고 예언으로 미리 보여준 그 바른 길을 찾아 믿음을 지켜야 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특별히 당부했지요. 딤후1:18,19입니다. “아들 디모데야 내가 네게 이 경계로써 명하노니 전에 너를 지도한 예언을 따라 그것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며 19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어떤 이들이 이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에 관하여는 파선하였느니라.” 나는 이 말씀을 참 좋아합니다. 아마 지난 시간에도 인용하였지요. 우리의 믿음이 파선하지 않도록 해야지요. 그렇게 하라고 예언을 주신 것입니다.

2. 우리가 이미 7장과 8장에서 로마가 역사에 등장하고 거기서 교권로마가 등장하여 성소를 헐고 타미드를 차지하고 진리를 땅에 던지는 사건을 공부했습니다. 그런데 11장에 다시 그것을 계시하셨는데, 그것이 구원의 복음에 대단히 중요한 사건임을 나타내는 것인가요?

답: 맞습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구원하시려고 하는데 사단은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막으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것을 두 번 세 번 말씀하셔서 성경을 연구하는 사람들이 반드시 깨달아서 복음의 올바른 길에 서 있기를 기대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래서 전체의 윤곽을 보여주는 것으로 시작해서 조금씩 조금씩 자세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11장에 와서는 그 방해 세력이 어떤 경로를 거쳐서 슬그머니 등장하는지 가르쳐주셔서 깨닫는 사람들이 결코 속지 않도록 지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난 시간에 이어서 다니엘 11:17~19을 읽고 그 역사적 진행을 찾아보기로 하지요. 좀 읽으시지요.

[단11:17~19] 그가 결심하고 전국의 힘을 다하여 이르렀다가 그와 화친할 것이요 또 여자의 딸을 그에게 주어 그 나라를 패망케 하려 할 것이나 이루지 못하리니 그에게 무익하리라 18 그 후에 그가 얼굴을 섬들로 돌이켜 많이 취할 것이나 한 대장이 있어서 그의 보이는 수옥을 씻고 그 수옥을 그에게로 돌릴 것이므로 19 그가 드디어 그 얼굴을 돌이켜 자기 땅 산성들로 향할 것이나 거쳐 넘어지고 다시는 보이지 아니하리라.

17절에 그가 결심하고 전국의 힘을 다하여 이르렀다가 그와 화친할 것이라고 했는데, 여기 그는 문장상으로는 16절에 영화로운 땅을 침입한 장군 폼페이로 보이지만, 이것은 로마나라 자체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 이 무렵 로마는 정치권력의 구조가 가변적인 상태에 있었습니다. 폼페이는 원래 이름 없는 사람이었는데, 당시 권력자 술라(Lucius Cornelius Sulla, B.C. 138~78)에게 발탁되면서 정계에 뛰어들었고, 몇 번의 싸움에서 승리하고, 스페인 정복과 동방 정복을 통하여 일약 권력의 정상에 서게 된 사람이었습니다. 당시에 권력에 대한 야심이 큰 크라수스(Marcus. L. Crassus, B.C. 114~53)와 캐사르(Gaius Julius Caesar, B.C. 100~44), 시저로 잘 알려진 사람이지요, 이 사람들의 책략으로 일차 삼두 정치를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그 후 캐사르가 갈리아 총독으로 나가 있고, 크라수스가 시리아 총독으로 가서, 파르티아와 전쟁을 벌여 B.C. 53년에 전사했습니다. 폼페이는 스페인 총독으로 임명되었으나 부관을 보내고, 자신은 로마에 있으면서 캐사르가 정치 핵심에 앉는 것을 저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캐사르의 딸인 폼페이의 젊은 아내 율리아가 B.C. 54년에 죽자, (캐사르가 정략결혼을 시킨 것이지요.) 로마에 있는 캐사르의 정치 기반인 원로원의 캐사르파 의원들을 모두 추방당했습니다. 그것을 본 캐사르는 자기 관할 지역인 갈리아를 떠나 루비콘 강을 건너 로마로 물밀듯 쳐들어간 것이지요. 캐사르의 유명한 말 “주사위는 던져졌다”는 말은 이때에 한 말입니다.

폼페이는 자기 군대를 거느리고, 발칸반도로 달아났다가 북쪽으로 진격하는 캐사르군을 추격하여, 발칸반도 파르살루스(Pharsalus)에서 접전하였으나 대패하고 애굽으로 달아나서, 애굽의 프톨레미 왕조에게 보호를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캐사르는 폼페이를 쫓아 전 병력을 이끌고 애굽에 이르렀지요. 폼페이를 처치하면 그는 로마를 혼자 잡는 것이 됩니다. 그러므로 그가 **전국의 힘을 다하여 이룬** 것입니다. 폼페이는 애굽인의 손에 죽고, 캐사르는 애굽에 입성하였습니다. 그때까지도 애굽은 로마의 영토로 병합되지 않고 있었습니다. 유명한 캐사르의 편지 왔다. 봤다. 이겼다. 라는 편지가 이때의 사건입니다. 캐사르는 애굽을 병합시킬 수 있는 기회를 잡았지요. 그러나 성경의 예언은 “그와 화친할 것이요”라고 하였습니다. 과연 캐사르는 애굽과 화친하였습니다. “여자의 딸을”받았기 때문입니다. 여자의 딸이라는 말은 “우바트 하나습”인데 “하나습”은 “여자

들”로 복순데요, 이 말은 “미녀”를 가리키는 히브리어의 관용어입니다. 캐사르가 얻은 “여자들의 딸은” 세계의 전설적 미인인 클레오파트라 VII세(B.C. 69~30)입니다. “그 나라를 패망케 하려 할 것이나 이루지 못하리니 그에게 무익하리라.” 애굽은 클레오파트라를 통하여 로마를 교란하려 했으나 성공하지 못하였고, 캐사르도 그 여자로 인하여 얻은 유익이 없었지요.

18에 그 후에 그가 얼굴을 섬들로 돌이켜 많이 취할 것이나 한 대장이 있어서 그의 보이는 수욕을 씻고 그 수욕을 그에게 돌릴 것이므로. “그 후는” 애굽과 화친한 후입니다.

캐사르는 남동생과 왕위 다툼을 하는 클레오파트라를 도와 그를 애굽 왕위에 앉게 했지요. 그가 클레오파트라와 사랑에 빠져 애굽에서 지체하는 동안 그의 점령지들에서 반란이 일어났습니다.

캐사르는 애굽을 떠나 다소에 상륙하여 소아시아의 킴메르족 보스포루스(Cimmerian Bosphorus) 왕 파르타케스(Pharnaces)의 반란을 진압하고, 다시 아프리카 누미디아 왕에게 피난한 폼페이와 남은 세력들을 해안 지방에서 섬멸하였습니다.

여기 “섬들”은 원어로 “이임”인데 직역하면 “바다 땅들”입니다. 해안 지방을 뜻하는 말입니다. 요즘 번역들은 그렇게 번역했습니다. 그래서 “그가 얼굴을 해안 지방으로 돌이켜 많이 취할 것”이라는 예언을 성취시켰습니다.

“수욕”은 원어로 “헤르파토”인데 “오만, 거만”이라는 뜻이고, “씻고”는 “웨호세비트”인데 “끝내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한 대장이 있어서 그의 보이는 오만을 끝내고, 그 오만을 그 오만한 자 자신에게 돌린다.”는 뜻입니다. 이것은 캐사르의 종말에 대한 예언으로 그대로 이루어졌지요. “대장”으로 번역된 말은 “지휘관”을 뜻하는 말입니다.

캐사르는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와서 종신 독재관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것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왕이 되려는 계획을 암암리에 추진하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오만”입니다. 당시 로마에는 “루페르칼리아”라는 축제가 있었는데, 젊은 귀족과 고급 정무관들이 벌거벗고 시중에 뛰어어나와 가죽 끈으로 아무나 마구 때리는 그런 축제였습니다. 그해 집정관인 안토니우스도 벌거벗고 뛰어다니며, 중앙 광장에서 구경하고 있는 캐사르에게 월계수로 만든 왕관을 씌웠습니다. 캐사르를 왕으로 추대하자는 제스처였지요. 안토니우스는 이 때 캐사르 근방에는 박수 부대를 배치하여 군중의 박수를 유도하도록 미리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러나 박수 부대의 박수에도 불구하고 군중들은 전혀 박수를 치지 않았습니다. 캐사르는 마지못해 그 왕관을 돌려주었는데, 그때 우레 같은 박수가 터져나왔습니다. 몇 번 같은 일을 반복했으나, 반응은 똑같았습니다. 이 일로 캐사르의 왕이 되려는 의지만 백일하에 드러났지요.

독재와 왕권을 극도로 싫어하는 공화파 사람들은, 이런 일 때문에 캐사르를 제거하려는 음모를 꾸몄고, 그 중심인물은 그해의 법무관인 브루투스(Brutus, B.C. 84~43)였습니다. B.C. 44년 3월 15일에 원로원을 소집하고, 이태리 이외의 로마 식민지에서는 캐사르의 칭호를 “왕”이라고 부르도록 결의하기 우하였습니다. 이때에 공화파들은 원로원에서 캐사르를 죽이기로 작정하고 브루투스가 그를 죽였습니다. 그가 죽은 것은 그의 “오만” 때문이었지요. “곧 한 대장(지휘관)이 있어서 그의 보이는 수욕(오만)을 씻고(끝내고) 그 수욕을 그에게 돌릴 것”이라는 말씀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19 그가 드디어 그 얼굴을 돌이켜 자기 땅 산성들로 향할 것이니 거쳐 넘어지고 다시 보이지 아니하리라. 이것은 18절의 결과를 말합니다. 자기의 오만으로 인하여 죽임을 당하므로 그는 다시 보이지 아니하도록 넘어진 것이지요. 이렇게 된 때는 그가 “자기 땅 산성”에 왔을 때였습니다.

18과 19절은 시간적으로 연속되는 사건이기보다는 캐사르의 종말에 일어난 사건을 강조적으로 예언한 것입니다. 18, 19절을 일관성 있도록 재구성한다면 “그 후에 그가 얼굴을 해안 지방으로 돌이켜 자기 땅 산성들로 향할 것이나, 한 대장이 있어서 그의 보이는 오만을 끝내고, 그 오만을 그 자신에게로 돌릴 것이므로 그가 거쳐 넘어지고 다시 보이지 아니하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여 캐사르에 대한 예언이 정확하게 이루어졌습니다.

3. 목사님, 참 긴 설명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캐사르, 즉 시저에 대한 예언이 그토록 세밀하게 예언이 되었군요.

답: 하나님께서 필요하다고 여기시면 그렇게 하시지요. 이미 우리가 다니엘 1장을 공부할 때 이사야서에 예언된 고레스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었지요. 하나님께서는 고레스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였을지라도 그에게 칭호를 주었다고 하셨지요. 고레스가 태어나기 거의 200년 전에 고레스라는 이름을 말씀하셨고, 이사야에게 계시로 기록하게 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바벨론 성을 어떤 방식으로 점령할 것인지도 예언했습니다. 그대로 되었잖아요. 5장을 공부할 때 자세히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런 하나님께서 캐사르의 사건을 자세히 말씀하실 수 있는 것은 당연하고 필요하다고 보셨기 때문에 자세히 기록하게 하셨지요. 그러므로 우리가 이렇게 기록되었고 이루어진 역사적 사건에 대하여 의심할 이유가 없습니다. 내가 거듭거듭 강조하지만, 성경예언은 사람들의 호기심을 채우려는 것이 아니고, 구원의 복음을 증거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언제든지 구원의 복음이 역사에서 어떻게 진행되며, 어떻게 방해를 받으며, 또 어떻게 승리하는지를 생각해야 합니다. 이 복음에 대한 것과 관련 없는 것을, 그 사건이 예언의 어떤 부분과 맞은 것 같기 때문에 성취의 역사로 해석하는 것은 예언이 구원의 복음과 관련되었다는 사실을 무시하는 해석이지요. 그렇게 하면 예언의 참된 의미를 곡해하게 됩니다. 이것은 아주 중요한 것이니까 명심해야 합니다.

4. 예, 정말 그렇군요. 시저가 죽은 후에는 어떻게 되지요?

답: 이제부터 구원사건이 역사적 사건으로 이루어지는 것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역사가 예언됩니다. 20절이 바로 그런 내용이지요. 구원사건은 창세기 3장부터 역사적 사건으로 진행되어 왔지만 그 중심이 구주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에 오시는 것과 관련되어 있지 않습니까. 20절이 예수님의 탄생사건과 관련된 예언이라는 말입니다. 읽어보지요.

[단11:20] 그 위를 이을 자가 토색하는 자로 그 나라의 아름다운 곳으로 두루 다니게 할 것이나 그는 분노함이나 싸움이 없이 몇 날이 못되어 망할 것이요.

그 위를 이을 자는 캐사르의 후계자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의 후계자는 바로 옥타비아누스입니다. 이 사람은 캐사르의 양자입니다. 그가 정권을 잡는 과정에는 어려움이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무난히 정권을 장악하였는데, 원로원에서 그에게 아우구스투스라는 칭호를 주었습니다. 이 말은 존엄자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의 이름 옥타비아누스보다 아우구스투스로 잘 알려졌지요. 이 사

람은 정치적 능력이 탁월했던 것 같습니다. 그가 모든 정객들에게 존엄자로 군림했던 것을 보면 짐작이 갑니다. 이 사람이 제정 로마를 시작한 황제로 보는데요, 그전까지는 정치체제가 공화정이었지요. 그런데 이 사람은 그 자신이 황제의 지위를 만들거나 취임을 하거나 국법을 개정하거나 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그를 황제라고 불러야 하리만큼 권력을 장악했을 뿐이지요. 대단한 능력자라고 생각되지 않습니까. 그는 토색하는 자라고 했는데, 이 말은 세금 거두는 자라는 뜻이거든요. 처음에 본문으로 누가복음 2:1,2절을 읽었지요. 다시 한 번 읽어보지요. “이 때에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2 이 호적은 구레뇨가 수리아 총독 되었을 때에 첫 번 한 것이라.” 아구스도 황제가 로마의 모든 식민지에 호적 명령을 내렸습니다. 이유는 인두세를 거두기 위한 조치였습니다. 인구를 정확하게 파악하여 사람 수대로 세금을 거두기 위한 것이었지요. 과연 그는 세금 징수하는 자를 아름다운 땅, 유대 땅에 보냈습니다. 유대뿐만 아니지요. 이것은 구주 탄생에 대한 하나님의 섭리를 성취시키는 도구가 되었습니다.

5. 호적 령이 어떻게 구주 탄생의 섭리를 성취시키는 도구가 될 수 있습니까?

답: 오래 전에 선지자 미가는 메시아가 베들레헴에서 탄생할 것일고 예언했습니다. 미가 5:2을 읽어봅시다.

[미5:2]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네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에, 태초에니라.

그런데 구주의 모친으로 택함을 받은 마리아는 나사렛에 살았습니다. 나사렛에서 베들레헴까지는 300리가 넘는 거리입니다. 차를 타고 잘 닦은 길에 다니는 요즘이면 300리가 그리 먼 길이 아닐 수도 있지요. 그러나 2000년 전 옛날입니다. 300리 길은 엄청 멀지요. 필수불가결한 일이 아니면 갈 수 없습니다. 더구나 마리아는 만삭이었잖아요. 그런데 아구스도의 호적 명령 때문에 베들레헴에 갈 수밖에 없었지요. 왜냐하면 모두 조상의 고향에 가서 호적하도록 했기 때문입니다. 요셉이 다윗의 후손이기 때문에 다윗의 고향 베들레헴으로 가야 했습니다. 아구스도의 호적 명령이 없으면 예수님의 베들레헴 탄생은 이루어질 수 없었지요. 때맞추어 로마 황제가 온 천하에 호적 명령을 내렸고 그때 마리아는 해산 기한이 그의 되었고, 베들레헴에 가서 거기서 구주 예수께서 탄생하셨습니다. 절묘한 사건 아닙니까! 미가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예언이 이런 역사적 섭리로 성취된 것입니다. 아마도 사단이 깜짝 놀랐을 것입니다. 사단은 어떻게 하든지 정치적 상황을 이용하여 하나님의 구원의 복음이 이루어지는 것을 방해하려고 혈안일 것이니까요. 이렇게 구주가 탄생하자 그는 헤롯을 동원하여 죽이려고 획책했지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구원의 계획은 반드시 성취시키려는 확고한 의지가 있기 때문에 사단이 감히 어쩔 수 없지요. 그는 구주가 사람이 되어 세상에 온다면 그를 이길 수 있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어릴 때 단번에 죽여버리려고 헤롯을 동원했지만 헛일을 했고 애매한 아기들만 학살했지요.

6. 예, 그렇게 되었군요. 참 하나님의 하시는 일이 놀랍습니다. 아구스도는 자신이 전혀 의식하지 못하면서도 하나님의 섭리의 손 안에서 일을 수행했습니다.(그렇지요.) 그런 다음 어떤 일이 있었

습니까?

답: 성경에 기록된 대로 호적 령을 내리고 세금을 많이 거두었겠지요. 그러나 “그는 분노함이나 싸움이 없이 몇 날이 못되어 망할 것이요”라는 말씀대로 예수 탄생 후 기원 14년 8월 19일에 평안한 중에 임종을 했습니다. 분노함이 싸움이 없이 죽은 것이지요. 역사는 아구스도부터 로마를 제정로마로 봅니다. 로마가 황제가 통치하는 나라로 정치체제가 전환된 것을 아구스도부터라고 보지요. 그래서 그를 로마의 초대 황제라고 합니다. 그 후 로마는 소위 팍스 로마나 시대로 태평을 누리면서 오랜 세월을 지냅니다. 소위 오현제, 다섯 현명한 황제들의 통치가 이루어지지요. 그러나 그 기간 동안 그리스도인들은 엄청난 핍박에 직면하기도 합니다. 핍박이 심할수록, 순교자가 많이 생길수록 그리스도의 복음은 더욱 힘 있게 전파되었습니다. 어떤 저술가의 말대로 순교자의 피는 복음의 불꽃을 널리 멀리 퍼뜨리는 도구가 된 것입니다. 이렇게 되니까 사단은 전술을 바꾸지요. 21절부터 예언은 사단이 어떻게 전술을 바꾸는지를 보여주는 내용인데요, 내가 계속 이야기하려는 것은 어찌면 나의 해석인지도 모릅니다. 우리교회에서도 그렇게 설명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만. 특별히 21절부터 몇 구절이 그런 것 같아요.

7. 그러면 목사님의 해석은 우리교회의 정통해석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말씀입니까? 그렇지는 않겠지요?

답: 저는 우리교회의 다니엘서 해석을 좋아합니다. 내가 다니엘서의 비밀을 우리교회의 해석에서 깨달았으니까요. 그래서 먼저 21절의 설명을 우리교회가 하는 설명부터 말하려고 하고 그것도 역사적으로 일리가 있는 것은 확실합니다. 그러나 그것만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조심해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저는 어디까지나 구원의 복음이 세상에서 전개되는 과정을 중심으로 예언을 이해하려는 생각으로 연구하니까요. 아마도 이 이야기는 다음 시간으로 미루어야 될 것 같군요. 시간이 거의 되었습니다.

8. 예, 목사님, 벌써 시간이 다 되었네요. 애청자들께서 다음 시간을 흥미를 가지고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기도로 마치지요.

기도: 하늘에 계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베푸시는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예언을 주셔서 우리 믿음을 지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예언의 지도를 잘 받아서 파선하지 않는 믿음으로 주님을 따르게 하여주옵소서. 애청자들과 우리가 함께 바른 길로 걸어서 영원한 나라에서 기쁨을 만날 수 있도록 복을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